‘명무·명창’ 몸짓으로 보는 3·1운동 1백년

‘한국의 명인명무전’ 100회 ‘名不虛傳’
국립국악원 예악당 3월 26~27일
송법우 스님, 정명숙 등 120여 명 출연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명무와 명창이 3.1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조명하는 무대가 열린다. 동국예술기획은 3월 26일부터 27일까지(저녁 7시 30분) 서울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한국의 명인명무전’ 100번째 무대인 ‘명불허전’을 개최한다.

우리 춤과 소리로 전통예술의 계보를 잇고 있는 ‘한국의 명인명무전’은 1999년 11월 ‘우리 전통의 원형보존과 전승’이라는 전통가치를 표방하며 우리 춤의 뿌리를 지키고 춤과 소리의 절대적 정신성을 계승하기 위해 시작된 전통예술의 무대다.

100번째를 맞는 이번 ‘한국의 명인명무전’의 무대는 ‘명불허전’이라는 제목으로, 3.1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각별한 의미를 찾는 이색적인 콜라보레이션 형태의 무대다. 독립선언문 낭송과 영상, 춤이 음악으로 변주되는 입체적인 춤사위를 선보인다.

백시향(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의 독립선언문 낭송으로 시작되는 이번 공연에서는 이매방류 살풀이춤의 명맥을 잇고 있는 준인간문화재 정명숙, 통영살풀이춤 인간문화재 엄옥자, ‘열사가(烈士歌) 소리꾼’으로 불리는 무형문화재 정순임 명창, 피리독주(상령산) 인간문화재 정재국, 승무 인간문화재 송법우 스님, 평양검무 인간문화재 임영순, 대금독주(팔도아리랑)인간문화재 이생강, 가야금병창 인간문화재 강정숙, 고깔소고춤 인간문화재 정인삼, 입춤 인간문화재 최윤희, 살풀이춤 단국대학교 교수 김지원 등 원로와 중견무용가 120여 명이 출연한다.

‘한국의 명인명무전’은 발표무대가 넉넉하지 않은 전통예술인들의 활동 무대를 넓혀온 것은 물론 신예와 중견 그리고 원로 예술인이 한 무대에서 과거와 현재, 내일의 꾸준한 맥을 잇는 전통무대의 전범이 된지 오래다.

그 동안 3천여 명의 원로와 중견, 신인들이 ‘한국의 명인명무전’ 무대를 통해 예술혼을 실현했으며, 150여 개 종목의 전통춤과 소리를 통해 우리 춤사위와 소리의 우수성을 알려왔다. 또한 ‘한국의 명인명무전’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도시를 비롯해 해외(일본, 중국, 몽골, 미국 등) 무대에서도 우리 것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꾸준하게 전파해왔다.


승무 인간문화재 송법우 스님의 승무.


이매방류살풀이춤 준인간문화재 정명숙.

‘한국의 명인명무전’은 100회를 이어오는 동안 조선시대의 마지막 무동인 명무 故 김천흥을 비롯해 한 시대의 전통예술을 대표하는 판소리 명창 故 박동진, 명무 故 김계화, 일인창무극 故 공옥진, 명무 故 이매방, 배뱅이굿 故 이은관, 여창가곡 故 김월하, 가야금병창 故 박귀희 등 우리 전통예술의 전설적인 별들이 거쳐 갔다. 또 그 예술인들이 30년 역사의 전통무대 가치를 빛내왔다. ‘인간문화재 대전’, ‘무형문화재 대전’ 등 한 때 문화재청 등에서 주관하여 전통예술의 명맥을 이어가던 공연들도 지금은 맥이 끊겨 ‘한국의 명인명무전’만이 전통예술을 계승하는 유일한 무대가 되었다.

동국예술기획은 “3.1독립운동 100주년 기념과 제100회 ‘한국의 명인명무전-명불허전’의 이색적인 콜라보레이션 공연이 문화융성의 초석을 위한공연으로, 민족의 한과 설움을 춤으로 승화한 우리 춤과 어울려 낭만과 감성이 흐르는 이 봄에 국립국악원 예악당을 찾는 서울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줄 것입니다.”고 공연의 취지를 밝혔다. R석 10만원, S석 7만원, A석 3만원. (010)4762-4333.

양산 3·1만세운동 이끈 스님들 흔적

특별기획전 ‘1919 양산으로부터의 울림’
양산시립박물관 3월13일~6월 2일

양산 만세운동 · 임정 초기자료 대거 공개
성해, 만우, 만해 스님 관련자료 공개

100년 전 경남 양산의 3.1독립만세운동을 기억하고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하는 전시가 열린다. 양산시립박물관(관장 신용철)은 3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기획특별전 ‘1919 양산으로부터의 울림’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3.1만세운동의 주축이었던 지방유생들이 통도사 성해선사의 회갑을 축하하며 1914년에 쓴 시와 기념사진을 최초로 공개한다. 이 자료에는 당시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오택언을 비롯하여 윤현진, 박민오 등 당시 학생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어 독립운동사에서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만해 스님이 통도사 강사 시절(1918년경) 쓴 친필 6곡 병풍과 오택언(당시 통도사 지방학림 동기)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전달받고 신평장터에서 김상문, 이기주 등과 함께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만우 스님(양대응, 1897~1968)의 각종 유품 50여 점과 구하 스님 독립자금문서도 최초 공개한다.


만우 스님 유품. 서적, 가방 등

그 밖에도 김구 선생의 친필 유묵,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자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재무차장이었던 윤현진의 유품과 대한민국임시정부 태극기 등 총 150여 점의 양산 독립운동 자료를 선보인다.

양산지역의 3.1만세운동은 3월 13일, 통도사 지방학림 유생 및 시민들의 만세를 시작으로 경상도 지역 독립운동 확산에 큰 영향을 끼쳤다.


성해선사 회갑연 기념사진. 1914년.

서울에서 3.1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오택언이 만해 스님의 지시로 통도사로 내려와 강원의 대표들과 만나 만세운동에 나설 것을 결의했고 1919년 3월 13일 신평마을에서 시위를 일으켰다.

전시는 총 4부로 1부는 ‘3월의 그날’로 3 · 1운동의 배경과 전국적으로 확산된 계기에 대해서 살펴본다. 2부는 ‘양산의 3 · 1운동’으로 통도사 지방학림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신평만세운동과 2차례에 걸쳐 진행된 양산장터 만세운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3부는 ‘3 · 1운동 그 후’라는 주제로 만세운동의 영향으로 수립된 우리역사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상해임시정부의 수립과 역할, 김구, 윤현진 등 주요 인물들의 활동을 소개한다. 마지막 4부에는 ‘3 · 1운동을 생각하다.’로 당시 독립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못했거나 잊힌 독립운동가들을 소개하면서 향후 과제에 대하여 되돌아보고 희망의 미래를 생각해보는 구성으로 마련했다.

신용철 관장은 “그동안 양산의 만세운동은 그 중요성에 비해 관심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인데 이는 충분한 자료들이 확보되지 않은 탓이 크다”며 “모든 시민들이 전시실에서 들려오는 100년 전 양산의 울림을 되새겨 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55)392-3323.

박재완 기자

국립경주박물관
전시해설프로그램

‘문화재 돋보기’ 3월 27일~11월 27일

국립경주박물관(관장 민병찬)은 3월 27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문화재 돋보기’를 진행한다.

‘문화재 돋보기’는 박물관 야간 개장(오후 9시까지)에 맞추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전시 담당자의 전문적인 해설과 질의응답을 통해 문화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3월 27일 ‘신라고분과 황금문화재’를 시작으로 11월 27일 ‘관세음보살’ 전시해설에 이르기까지 신라를 주제로 한 8회차의 교육과 특별전 ‘페르시아’의 전시해설도 이뤄질 예정이다.

‘문화재 돋보기’를 통해 천년고도 경주의 역사와 문화 및 고대왕국 신라에 대한 식견을 넓히고 그 가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다.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서는 당일 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해당 전시관 입구에서 접수하면 된다. (054)740-7500.

박재완 기자

